

Contents

세계는 지금

- 01 EU, 혁신으로 유럽 통합 조기 실현 박차
- 02 일본 요코하마시, 지식재산 전략 활성화 도모
- 03 미국, 2006년도 건설 경기 맑음

테크노 트렌드

- 04 인터넷의 바다를 더욱 자유롭게 만든 IPv6
- 04 다공성 물질을 이용한 단백질 결정화 기술개발로 생명과학 연구 가속화
- 05 비만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 06 석탄, 액화 발전 기술로 옛날의 명성을 되찾다
- 07 풍력발전, 북미 재생에너지 시장의 비중이 높아져

HOT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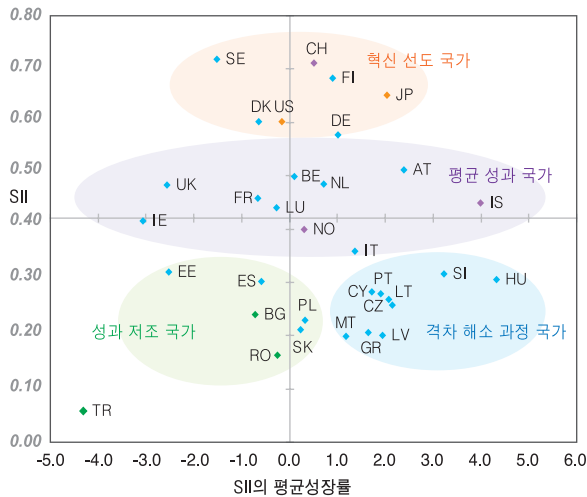
- 08 아스피린도 넘겨 성차별을?

EU, 혁신으로 유럽 통합 조기 실현 박차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는 혁신평가보고서(EIS)에서 유럽 지역 전체의 혁신 성과는 아직 불충분해 향후 미국과 일본과의 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EU 회원국과 미국, 일본 등 전체 31개국을 대상으로 혁신의 투입과 성과 5개 범주내 26개 지표를 통해 25개 요약혁신지수(SII)와 SII 평균성장률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혁신 성과정도를 비교분석해 크게 4대 국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혁신성과 국가의 4대 그룹 분류



*점선은 EU 25개국의 평균

혁신의 분류 지표

대분류	중분류	내용	지표
투입지표	혁신촉진자	혁신 잠재력의 구조적 조건 측정	20~30세 인구 1,000 명당 과학기술 졸업생, 25~46세 100 명당 3차 교육이수 및 평생 교육 참여 인구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등
	지식창조	지식 기반 경제의 성공을 위한 주요 요소들인 인적 요인들과 연구개발(R&D)활동에 대한 투자 측정	공공 및 기업 R&D 지출 비율, 첨단기술 R&D 비율 등
성과지표	혁신과 기업가정신	미시경제수준에서의 혁신에 대한 노력의 측정	중소기업혁신비율, 혁신지출비율, 초기창업 자본율, ICT 지출비율 등
	혁신적용	노동과 기업활동으로 나타난 혁신 성과의 측정	첨단 서비스분야 고용비율, 총수출 중 첨단 제품 비중, 신제품 판매비율 등
	지식재산권	하이테크 부문에서 성공했던 노하우의 측정	100만 명당 유럽 및 미국 특허건수, EU 상표 및 디자인등록 건수 등

Techno Leaders' Digest

TLD는,

Timely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주간동향지,

Leading

과학·기술계 리더를 위한 차별화된 지식정보지,

Distinguis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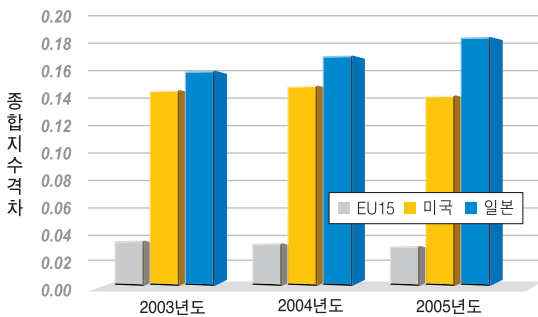
전문가그룹이 검증한 과학·기술 핵심정보를 가공분석한 고급정보지입니다.

2006년 2월 7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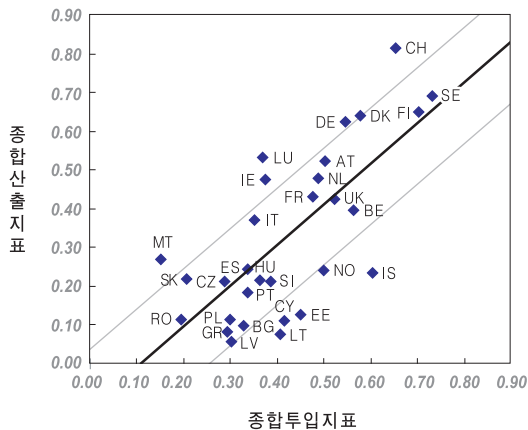
4대 국가 그룹에는 스웨덴(SE), 핀란드(FI), 스위스(CH), 독일(DE), 덴마크(DK)와 같은 혁신 선두 그룹, 프랑스(FR), 영국(UK) 등의 평균 성과 그룹, 슬로베니아(SI), 헝가리(HU) 등의 격차 해소 과정 그룹, 스페인(ES), 불가리아(BG), 터키(TR) 등의 성과 저조 그룹이 포함된다. 격차 해소 과정 국가와 성과 저조 국가의 혁신 지체는 실제로 유럽 통합을 조기 실현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일본과 EU 25개국의 혁신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미국과 EU 25개국 간의 격차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등은 혁신 투입이 혁신 성과로 효율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아이슬랜드나 리투아니아 등은 투입에 비해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 혁신 차이 (미국, 일본, EU 15개국)



혁신 효율성



이번에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중국과 인도도 세계적인 연구와 혁신의 중심으로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EU는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http://www.trendchar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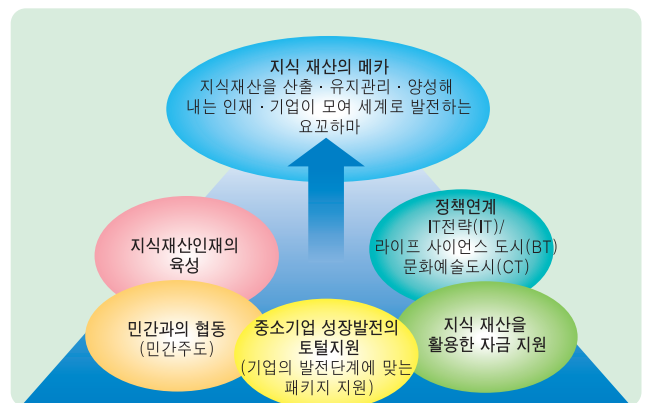
일본 요코하마시, 지식재산 전략 활성화 도모

일본의 요코하마시는 지역내 기업과 대학 등의 지식재산(특허권, 저작권, 기술, 노하우 등)의 활용을 지원하는 구조로서 (1) 지역 중소기업 등의 신사업 전개(제2창업) 및 벤처기업 창출 촉진, (2) 신기술, 신사업, 신문화를 활발하게 창출하는 경제와 창조적 사업 활동의 장으로서 매력있는 요코하마시 구축을 목표로 「요코하마형 지식재산 전략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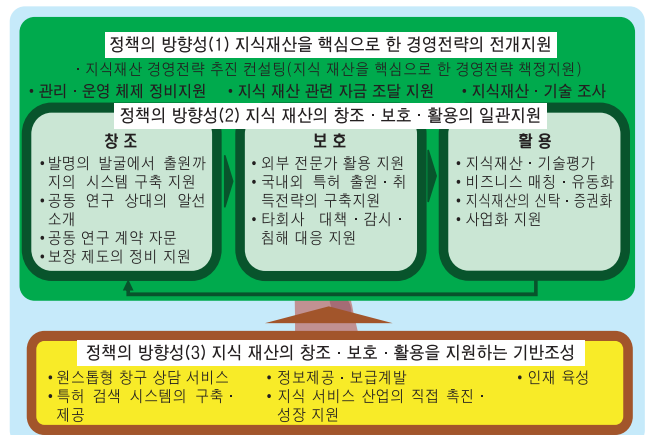
▶ 배경 및 목적

- 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 환경 변화
- 비 「성장·확대」 시대의 행정 변화
- 지식 재산을 살린 요코하마시 경제 활성화
- 지역 중소기업 등의 국제 경쟁력 강화, 활력의 향상
- 신사업 전개 등(제2창업)·벤처기업의 창출 촉진
- 신기술·신사업·신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있는 요코하마시 경제
- 창조적 사업활동의 장으로서 매력있는 요코하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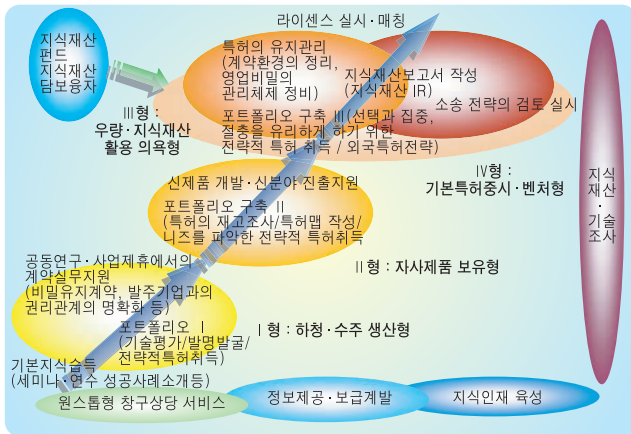
▶ 요코하마형 전략의 5대 특징



▶ 정책의 방향성



▶ 기업형태별 토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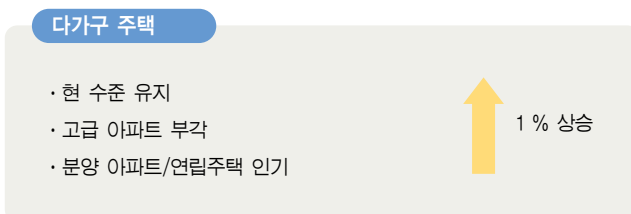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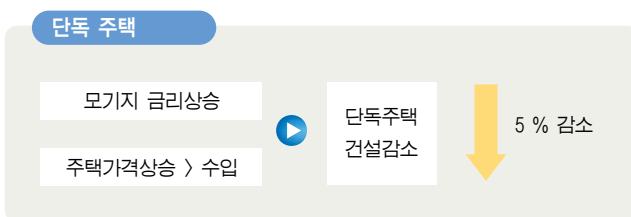
http://news.braina.com

미국, 2006년도 건설 경기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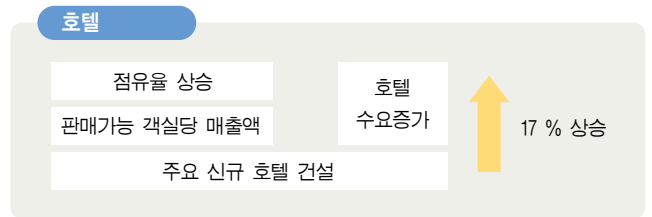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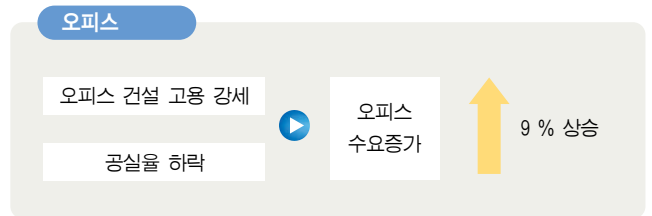
미국의 맥그로힐건설 경제전망팀에 의하면, 2005년 미국 건설산업의 신규매출이 6,360억 달러까지 올라가 전년 대비 8 % 상승하였으며, 1년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2 % 늘어났다고 한다. 맥그로힐건설은 건설매출이 예상보다 증가한 것은 2004년에 이어 2005년도에도 최고기록을 세운 단독주택 건설의 호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2006년은 단독주택의 신규건설이 위축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건설산업이 통계수치 상으로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인지는 불투명하지만, 호텔, 오피스, 학교, 의료시설, 공공 공사 부문을 포함한 전체 건설 신규 매출은 3 % 성장할 것으로 맥그로힐건설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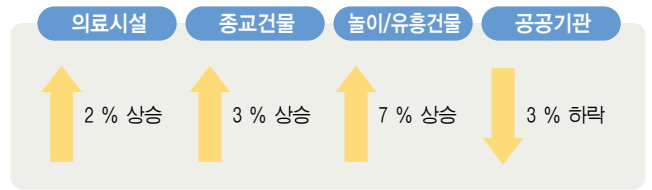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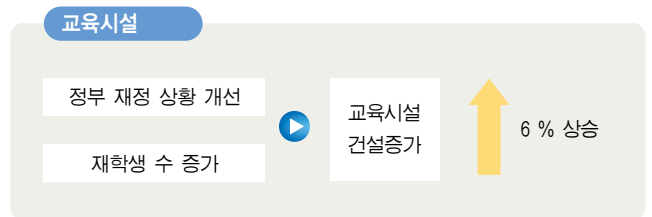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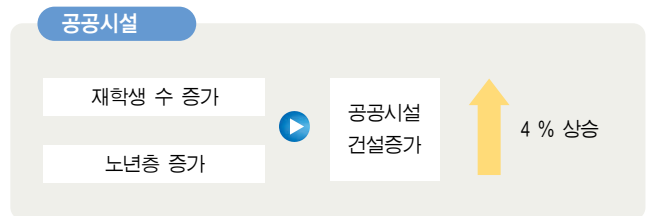
▶ 주택시장, 냉각



▶ 상업용 건물, 전망 밝음



▶ 공공시설, 신규수요로 성장 전망



▶ 공공공사, 봄 예상

- 최근의 강세를 이어나갈 전망
- 교통 및 환경 프로젝트 신규 건설
- 걸프 연안지역의 허리케인 복구 공사 이 공공공사 매출을 7 % 끌어 올
- 318억달러로 3 % 상승 전망 리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임.

http://newyork.construction.com

지식코디네이터 coco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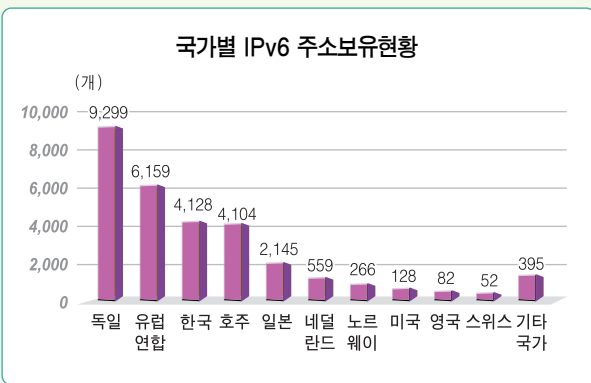


인터넷의 바다를 더욱 자유롭게 만든 IPv6

인터넷의 확산으로 기존의 43억 개의 IP 주소체계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새롭게 등장한 IP 주소체계인 IPv6는 차세대 인터넷 통신 규약으로서 유비쿼터스 시대의 대표적인 인프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확보하고 있는 IPv4 주소의 갯수는 3,748만 개이지만, 2004년말에 이미 인터넷 이용인구는 3,100만 명을 넘어섰다. 1인당 1개씩의 주소를 할당하고,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게 주소를 부여한다고 하면 거의 바다난 셈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IPv6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었다.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의 가장 큰 특징은 IPv4의 32 비트 주소체계를 128 비트로 확장했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주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 주소체계에 비해 인터넷의 속도, 품질, 보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인터넷 프로토콜의 가장 최신 버전인 IPv6는 어드레스 주소를 확장·보안하며 QoS,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바일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버그, 스팸,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보안 이슈, 통신 품질 등 많은 것들이 전문가로 하여금 IPv6의 상업용 개발을 촉진시키고 각국의 정부에게 IPv6로의 재변혁을 유도하고 있다. 2006 CES에서도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미래 IPv6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의 연구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인터넷 주소의 급격한 부족으로 IPv6를 채택중인데, IPv6서밋 회장인 알렉스 라이트만은 “미국은 현재 1,000~2,000 명의 IPv6 사용자를

가진 반면 일본은 200,000~500,000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0년경에 IPv6로의 전환이 1조 5,500억 달러 규모의 기술 시장을 만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라이트만은 “미국방성은 IPv6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콘텐츠를 모바일 기기, TV, PC로 보급하는 DAVETV의 회장인 레스 옴은 “미국에는 너무 많은 규제와 경쟁자들 때문에 채택이 지체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IPv6의 강력한 지지자인 미국정부와 국방성은 전환을 위해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백악관 예산국은 미연방정부에 IPv6 전환 계획을 2006년 2월까지 세우고 2008년 6월까지 의무적으로 준수하라고 촉구했으며, 미국정부는 2017년 이후에는 IPv4 패킷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informationweek.com>

지식코디네이터 Kimyn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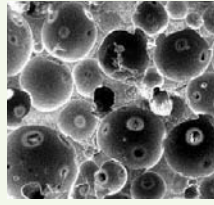
다공성 물질을 이용한 단백질 결정화 기술개발로 생명과학 연구 가속화

영국의 임페리얼대학과 서리대학에서 새로운 단백질 결정 제조법을 공동으로 개발해 신약 발굴과 질병 치료법 연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생명과학의 주된 연구목표는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기능을 규명하는 것인데, 단백질의 기능은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구조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백질의 구조분석에 필수적인 작업인 결정화 과정을 통해 단백질을 3차원 구조로 만들고, 이를 통해 단백질의 기능을 분석하거나 더욱 효과적인 질병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한다.

연구진은 「바이오클래스(BioGlass)」라는 다공성 물질이 단백질을 포획해서 결정핵 형성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바이오클래스」는 크기가 다양한

세공으로 구성된 물질로서 단백질 결정을 성장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세공의 크기에 따라 결정핵 형성이 유도되는 단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단백질을 결정화할 수 있고, 1개의 침강제(Nucleant)를 통해 수많은 단백질이 결정화되도록 유도하였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비록 단백질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 「범용 핵화제」는 아닐지라도 이론모델과 실험결과를 접목해 범용 핵화제의 설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결정화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 구조분석을 통한 단백질의 기능규명이 빨라짐에 따라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 개발은 물론이고, 산업적으로 유용한 촉매의 개발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http://www.physorg.com>
 지식코디네이터 brmdolee

비만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에너지 저장 및 식욕 조절 시스템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 가속화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인 중에서 성인의 30%에 해당하는 6천만 명 이상이 비만으로 집계되었고, 6~19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역시 1980년 이후 과체중 비율이 3배로 증가해 16%가 되었는데, 이는 9백만 명이 넘는 숫자이다. 비만은 고혈압, 제2형 당뇨병, 관상동맥 심장질환, 뇌졸중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체중을 조절하는 요인에는 먹는 음식의 양과 에너지 저장을 조절하는 시스템도 포함된다. 신체의 에너지 상태나 소화기관에 유입된 영양물질의 양 등을 감지하는 센서들, 이 신호를 뇌에 보내는 호르몬 또는 신경 시스템 그리고 뇌에서 다시 식욕과 에너지 저장을 조절하도록 내보내는 신호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소들

이 복잡한 체중 조절 장치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렙틴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결과, 오우비스타틴(Obestatin)의 발견, 지방 저장 단백질의 발견으로 비만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렙틴(Leptin)은 지방세포에서 유래된 인자로서 지방질 에너지 저장에 관한 정보를 뇌에 제공한다. 1990년대에 렙틴이나 렙틴 수용체 유전자를 제거한 생쥐는 음식 섭취가 증가해 비만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비만 치료제 연구의 열쇠로 각광을 받았었다. 그러나 인간의 비만과 관련해서 렙틴이 결핍된 경우가 매우 드물어 렙틴 자체를 비만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렙틴을 뇌로 운반하는 시스템이나 렙틴 신호전달 과정의 결함으로 인한 렙틴 내성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 비만과 렙틴, 오우비스타틴, 지방 저장 단백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 활성화

위장이 비어있을 때 뇌로 보내는 신호물질로는 그렐린(Ghrelin)이라는 펩타이드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호르몬이 뇌로 전달되면 우리는 배가 고픈 것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렐린은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그렐린의 유전자를 제거하면 식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식욕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렐린은 먼저 프로그렐린(Proghrelin)이라는 더 긴 단백질로 합성된 후에 일부가 잘려 완성되는데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연구팀은 프로그렐린으로부터 다른 펩타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우비스타틴으로 명명된 이 펩타이드는 그렐린과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쥐에 오우비스타틴을 투여하면 음식 섭취가 줄어들고 체중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오우비스타틴의 기능을 모방하는 물질을 이용해 비만을 치료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육에 존재하는 SCD-1(stearoyl-CoA desaturase -1)이라는 효소는 지방산의 합성을 촉진하여 지방을 축적시키는 대신 지방의 소비는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

는데 비만인 사람은 마른 사람에 비해 이 효소의 활성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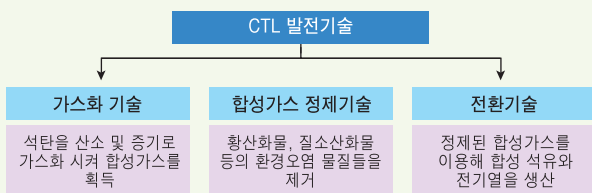
비만에는 매우 복합적인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사회적, 정서적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의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발견된 식욕이나 에너지 저장을 조절하는 인자들은 비만 치료제 개발의 좋은 목표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POMC 뉴런을 활성화시키거나 NPY/AgRP 뉴런을 억제하는 화합물, 그렐린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오우비스타틴의 기능을 모방하는 화합물, 그리고 근육의 SCD-1를 억제하는 화합물 등은 비만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http://www.cdc.gov>
지식코디네이터 knuchoi



석탄, 액화 발전 기술로 옛날의 명성을 되찾다

석탄액화(CTL) 발전기술은 저렴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석탄을 이용해 합성석유, 전기,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복합공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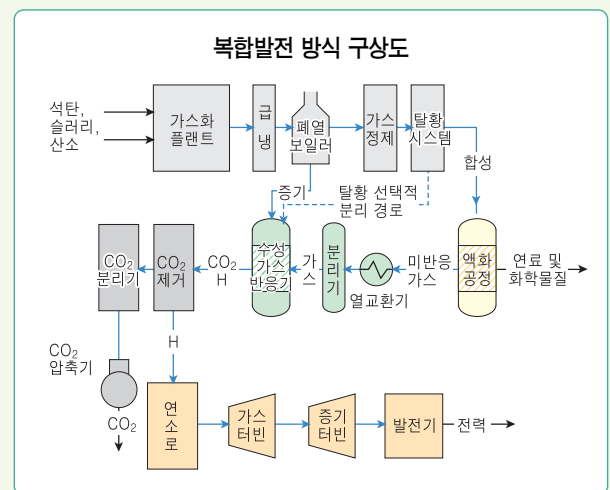
CTL 발전 기술은 석탄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특히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을 저렴하게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 또한 기존의 스팀 터빈만을 이용하는 방식에 비해 발전효율과 오염물질 제거효율이 높은 가스화 복합 발전(IGCC) 기술에 이용되는 복합 발전(가스터빈 및 스팀터빈 동시 사용) 방식으로 전기 및 열을 생산하고 합성가스를 이용해 액체연료(디젤, 휘발유, 항공유 등), 석유화학 기초물질(메틸렌, 에틸렌, 프로필렌, 왁스 등), 차세대 청정연료(수소, DME 등)를 생산할 수 있다.

최신 미분탄석탄발전과 IGCC의 비교

구분	초임계 미분탄발전 (Supercritical PC)	석탄가스화복합발전 (IGCC)	IGCC 비교우위 (IGCC/PC, %)	
오염물 배출 (g/kWh)	SOx	2.15	0.13	6
	NOx	1.1	0.32	29.1
	분진	0.27	0.02	7.4
	CO ₂	774	745	96.2
발전 효율(%)	39.6	41.2	104	
투자비(\$/kW)	1,290	1,350	104.7	
전기생산 단가(\$/MWh)	46.7	50.2	107.5	

미국의 렌텍(Rentech)이 특허를 취득한 CTL 복합 발전 기술은 우선 석탄 슬러리와 산소를 가스화공정(1,300~1,500℃)에 주입해 합성가스를 생산한다. 생산된 합성가스는 급냉기, 폐열 보일러, 산성가스 제거 공정, 황 제거 공정을 거친 다음 FT 반응기로 주입되어 합성연료 또는 석유화학 기초물질로 전환되며 FT 반응기에서 미반응된 합성가스는 열교환기를 거쳐 수성가스 반응기로 주입된다. 수성가스 반응기에는 폐열 보일러에서 생산된 증기가 주입되어 이산화탄소와 수소로 전환된다. 생산된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제거기를 통해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분리되어 저장된다. 수소는 연소로를 지나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렌텍의 CTL 복합 발전 플랜트는 5,550 톤을 사용하여 6,000 배럴의 액체 연료와 가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수성가스 전환기를 통해 배출되는 가스는 38 %의 수소, 37.5 %의 이산화탄소, 23 %의 물로 구성되어 있고 일산화탄소와 메탄, 질소의 함량은 1 % 미만이다. 플랜트에서 제거되는 이산화탄소는 11,300 톤이며 터빈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349 MW가 된다.



- 렌텍의 실적(Rentech)

특허를 취득한 CTL 복합발전 공정을 이용해 DKRW 에너지그룹의 자회사 DKRW-AF와 기술 사용을 위한 계약(MLA)을 체결

http://www.greencarcongress.com
지식코디네이터 fig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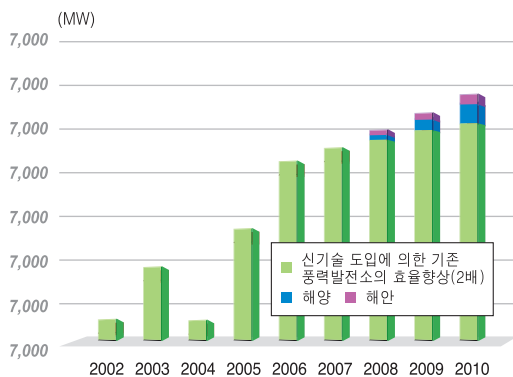
풍력발전, 북미 재생에너지 시장의 비중이 높아져

미국의 첨단에너지연구회사(EER)가 북미지역 풍력 에너지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상황을 조망하기 위해 발간한 「풍력시장 및 전략(2005~2007) 보고서」에 의하면, 북미지역에서 풍력발전소는 2005년에 사상최대로 건설되었으며, 2006년에는 더욱 많아져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터빈 공급을 능가하는 미국의 풍력시장

미국의 풍력발전소 건설이 급성장한데에는 2004년 말에 실시된 생산조세감면(PTC)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05년에 에너지정책법의 도입과 함께 PTC가 2007년까지 연장되면서 풍력발전산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풍력발전의 성장으로 기존 발전소의 주원료인 천연가스 비용을 대폭 줄이고 동시에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북미지역 풍력 발전소 건설추이(2002~2010년)



그러나 PTC 도입으로 지역 제조업자들은 투자를 꺼리게 되어, 풍력발전산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점에 터빈과 부품의 부족을 초래, 발전소 건설이 연기

또는 취소되었다. 터빈의 공급부족이 계속될 경우 풍력산업의 성장에 한계를 가져오고,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2007년까지만 유효한 PTC가 만료되는 2008년부터는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EER에 따르면, 터빈 판매업자들이 2005년에 터빈을 모두 팔았으며, 2007년말까지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거의 매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된 회사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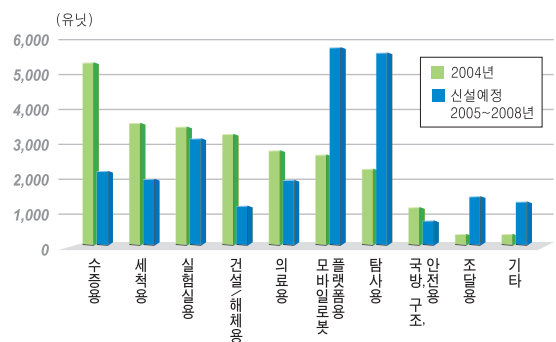
http://www.emerging-energy.com
지식코디네이터 Sohan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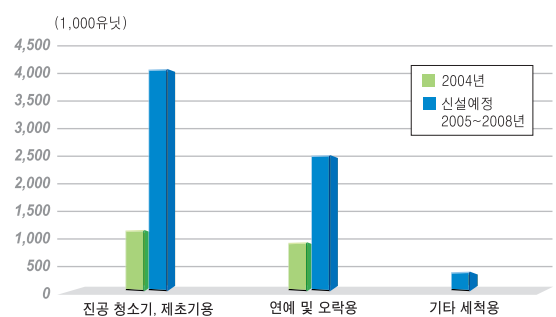
로봇 산업은 역시 미래 산업!

- UN 조사에 따르면, 로봇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에 약 55만 대의 가정용 로봇이 판매되었으며, 2008년까지 450만 대에 달할 것으로 기대됨.
- 로봇의 용도는 전기제품, 안전시스템, 의료, 방어시스템, 청소장치 등을 들 수 있음.
- 로봇의 성장은 아시아 지역이 가장 빨라 2004년에 약 57%의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은 이 수치의 2배에 달함.

전문 서비스 로봇의 판매량(World Robotics 2005)



개인 가정용 서비스 로봇의 판매량(World Robotics 2005)



http://www.taipeitimes.com
지식코디네이터 wolk

HOT BOX

아스피린도 남녀 성차별을 ?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남녀의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의학협회지널(JAMA)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용되는 약품중 하나인 아스피린도 남녀를 차별한다고 보고하였다.

뉴욕주립대 연구진이 1966~2005년 3월 기간에 95,456 명(남성 44,114 명, 여성 51,342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스피린 복용과 관련된 6건의 연구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아스피린의 심혈관 보호작용이 남성과 여성에게서 다르게 나타났다.

아스피린을 규칙적으로 복용한 여성들은 뇌졸중이 17 %나 감소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심근경색에 대해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즉, 아스피린은 남성의 심근경색을 32 %나 감소시키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6건의 연구 중에서 3건은 남성, 1건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건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모든 대상자들은 연구 개시시점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약효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앞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체내에서 아스피린이 각각 어떻게 바뀌는가’와 ‘아스피린이 남성과 여성의 혈소판 및 혈관벽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연구를 할 것”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그리고 아스피린이 일부 복용자들에게서 위장관계 내출혈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하였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아스피린을 평균 6.4년간 정기적으로 복용했던 남성들의 경우 1,000 명당 3건, 여성들은 1,000 명당 2.5건 꼴로 출혈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http://www.healthday.com>

Techno Leaders' Digest 기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우편번호 | 305-806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발 행 처 | KISTI 동향정보분석팀

전 화 | 042-828-5184 / FAX : 042-828-5198

E-mail | kang1@kisti.re.kr / ss494@kisti.re.kr

담 당 | 강현무, 이광숙 / 팀장 : 최현규

U R L | <http://analysis.kisti.re.kr>

